

# 金井

2015. **07<sup>+</sup>08**  
www.beomeo.kr



「금정金井」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사보報로 범어사의 소식 및 교계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강계단金剛戒壇,  
금강과 같이 보배로운 계戒

계울 도량을 세우기 위한 동산 대종사의 뜻이 담긴 글씨.

## CONTENTS



- 4 • 일기일회一期一會
- 6 • 처염상정處染常淨 \_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선문찰요 혈맥론禪門撮要 血脈論 ④
- 9 • 아름다운 순간
- 10 • 법향의 숲 \_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깨닫고 보면 삼독貪瞋癡이야말로  
삼학戒定慧의 또 다른 모습
- 14 • 특집 \_ 돌아온 칠성도 \_ 이민선  
범어사 칠성도, 발견부터 환수까지
- 26 • 특별기고 \_ 문명대  
칠성도 환수는 모범적 문화재 환수의 사례

30 • 무비 스님의 화엄경 산책 ⑬

34 • 스승에게 길을 묻다 \_ 이성수  
팔불중도八不中道の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대종사

40 • 그곳에 가면  
한국 차茶의 명지,  
선차 도량 봉명산 다술사

45 • 범어사 성보聖寶 \_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46 • 화엄 구법만행 ④ \_ 이일야  
화엄과 신앙

52 • 도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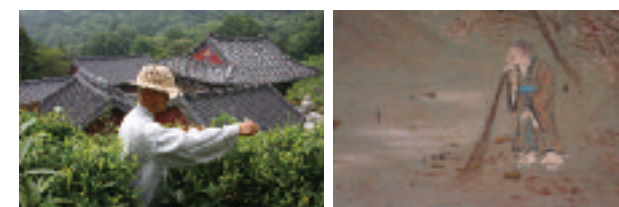
54 • 절집 밥상 \_ 범어사 대성암  
여름의 과일 수박의 변신,  
열무 수박국수

56 • 선우善友  
불법의 바다에 띄운 공불련의 뗏목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 회장 이종원

60 • 주지 스님 동정

61 • 금정소식 및 알림마당

64 • 법인소식





하안거 해제 기념 사진

1962년 음력 7월 15일







처염상정 處染常淨

금강경에 세존께서 “수보리아, 내가 먼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서 실제로 도를 얻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수보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그래, 맞다. 실제로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만 두고 보자면 부처님이 도를 얻었다는 것이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도, 진리, 불법’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 알고 있지만 말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만약 내가 그때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연등불이 ‘만약 그대가 성불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불하여 석가모니부처님이 된 것이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짧은 시간에 다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듣고 생각한즉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짐작하고 이해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아달다가 없어지지도 않은 머리를 구하러 나간 이야기를 했듯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손이 저절로 머리에 올라가서 ‘본래 여기에 머리가 있었다.’를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착각을 스스로 알게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르침이지요.

착각을 한 것을 ‘잃었다.’고 하고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는 잃은 적도 얻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여태 없었던 것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있는 것인데 어찌 얻었다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천 가지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임제 선사가 “어떤 것이 본래면목입니까?”라고 황벽 선사에게 묻자 선사가 곧바로 몽둥이로 때린 이치 그것입니다. 임제 스님은 황벽 선사가 때린 것이 “너무나 큰 자비를 베풀고 가르친 것이다.”라는 대우 스님의 말을 들은 그 자리에서 홀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리를 내놓고 보여 주려고 해도 보여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세 번 쥐어박으니 “너의 스승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 보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자리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예로 남전 스님이 의문을 가지고 물으러 온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코끝에까지 온 사람의 코를 비틀면서 “이놈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불법, 진리, 도를 모르겠느냐?” 했을 때 “아아” 하는 그 소리에 홀연히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방망이로 맞으면 “진리다, 도다.”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아아’ 소리밖에 안 하겠지요.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하지 않으면 되는데 공부해서 어렵지요? 그래서 ‘무위법無爲法- 함이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유위법은 ‘생사’이지요.

여러분은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분은 이런 힌트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정



등각, 진여불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까?’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것을 ‘참 진眞 같을 여如, 진여眞如’라 했고 열반은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와 청찬에 쉽게 불이 붙어 버리는데 불이 꺼진 상태가 니르바나입니다.

‘평상심, 무심이 도, 즉 일상생활이 도.’라고 했습니다. 무심을 감정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말만 좇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는데 사로잡혀 있으니 무심이 아닙니다.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 앞에 오면 오는 줄 알고 들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심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책, 소리, 색깔’은 자기 마음에 없는 것인데 ‘도, 진리’는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에 집착하여 그 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진리를 깨닫고 법을 터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얻으려 해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깨달았느냐?

서산 대사도 많은 것을 공부하여 아는 것은 많아도 도저히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화두공안’을 들고 수행을 했습니다. ‘화두공안’ 이 자리는 말로써 설명할 수 없고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늘 수행하다가 걸망을 지고 어느 마을을 지나던 중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아!’ 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았습니다. 학문, 지식,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꼬끼오’ 하는 울음소리를 듣는 그 자리, 그것이 ‘화두공안’의 본래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옛적에 열심히 공부하던 수행자가 도저히 깨닫지 못해서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의 근기를 알아차린 선사가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일 새벽까지 잠자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아라.”고 해서 전처럼 생각을 하거나 무엇을 찾지 않고 너무나 일없이 편안하게 있었더니,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 “쿠우웅” 소리에 ‘악!’ 하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항상 듣고 있는 종소리를 생각 속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무심으로 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안 것입니다. ‘무심에서 알아차린 자리’ ‘근본적으로 갖춘 자리’ ‘깨달음과는 관계없는 자리’,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 생사윤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임제록에 “성불하고 싶냐?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을 자르고 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과 달마 대사가 깨달은 자리이다. 부처님과 달마와 자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따로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변함없는 자리, 진여불성의 자리를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그 자리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아, 여래는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품지 말고 대하라.’, 바로 ‘본심,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그것이 따로 이름 붙일 것 없는 ‘무심, 도, 진리’입니다. **金井**



사진 · 석공

### 안거安居

치열한 수행정진의 시간.

회광반조回光返照.

빛을 돌이켜 비추듯

자기를 돌아보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생,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멸滅이라 한다.

## 깨달고 보면 삼독[貪瞋癡]이야말로 삼학[戒定慧]의 또 다른 모습

금정총림 법어사 주지  
수불 스님

### • 육조단경 본문

무엇을 '바라밀波羅蜜'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인도말로서 중국어로는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며, 생멸을 벗어났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계에 염착(染着)하면 생멸이 일어나는데, 이는 마치 물에서 물결이 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생멸이 있는 경계를 '차안(此岸)'이라고 부른다.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아니하면 곧 생멸이 없어지니, 이는 물 이 항상 막힘없이 흐르는 모습과 같다. 이를 '피안'이라고 하며,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지만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망상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매 생 각마다 실천한다면 이를 진성(眞性)이라 부른다. 이 법을 깨치는 것이 반야법이며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이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즉 범부(凡夫)이고, 한마음으로 반야행을 닦는다면 그 자신이 곧 부처이니라.

선지식들이여! 범부가 바로 부처이고,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라. 앞생각이 미혹하면 즉 범부이고, 뒷생각에 깨 달으면 즉 부처이다. 앞생각이 경계에 착(着)하면 곧 번뇌이고, 뒷생각이 경계에서 벗어나면 곧 보리이니라.

### 선행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생,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멸滅(滅)이라 하고, 이렇게 거듭해서 끊어지지 않 고 생멸하고 또 생멸하는 모습이 윤회(輪廻)다. 죽어서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계속해서 윤회 하는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멸을 여의어야 하며, 생멸이 끊어진 자리가 피안이고 바라밀이며 바로 미혹을 벗어난 성품자리다.

달마 대사가 지은 《오성론(悟性論)》에 “미혹할 때는 차안에 있고 깨달으면 피안에 있다. 만약 마음이 공 한 줄 알고 모양을 보지 않으면 미오(迷悟)를 여윈다. 이미 미오를 여의면 역시 피안도 없다. 여래는 차 안에 있지도 않고 피안에 있지도 않고,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中流)에도 있지 않다.”고 했다.



물결이 없다면 차안과 피안의 구별이 없듯이, '번뇌는 본래 없음'과 '번뇌가 여래의 종자'임을 여실히 알면 되는 것이다. 큰 바다의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가치를 알 수 없는 구슬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번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큰 보배를 얻을 수 없다. 번뇌를 없애려거나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번뇌를 내버려둔 채로 번뇌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곧 부처인 것이다.

● 육조단경 본문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인 법으로서, 머무는 바가 없고, 가고 오는 바도 없다. 삼세제불三世諸佛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마땅히 큰 지혜로써 오온五蘊과 번뇌와 진로塵勞를 타파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룰 수 있고, 삼독三毒을 계滅, 正定, 혜慧로 바꿀 수 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法門은 한 반야에서 팔만사천 지혜를 낸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에게 팔만사천 진로塵勞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塵勞가 없으면 지혜가 늘 나타나서 자신의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념無念이니라. 과거 사물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현재 경계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인연시기에 따라 자신의 진여자성眞如自性을 응용應用하고 지혜로 관조觀照하며 어떤 한 법도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하는 도道이니라.”

선해

본래 모든 인연들은 ‘마하반야바라밀’의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 있으나, 중생은 알게 모르게 번뇌 망상에 뒤덮여 이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아예 인연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이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지혜를 밝히는 공부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깨닫고 보면 삼독貪瞋癡이아말로 삼학戒定慧의 또 다른 모습임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성을 여의지 않고 지혜를 발하면, 번뇌 망상이 본래 공정한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팔만사천 진로 속의 모든 인연들이 항상 진여의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있으며, 자성은 모든 번뇌 망상을 포용하지만 결코 번뇌 망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지혜를 발하여 관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즉시 불도를 이루게 하는 큰 방편이 ‘마하반야바라밀’이다.

● 육조단경 본문

“선지식들이여!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般若三昧에 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반야행般若行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승持誦해야 한다. 그리하면 반드시 견성할 것이다. 이 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음을 마땅히 알라. 경에서도 분명하게 찬탄하였으나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법문法門은 최상승最上乘이라 큰 지혜 있는 사

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며, 근기根器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은 이 법문法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 비유하자면 큰 용이 이 세상에 비를 내리면 성읍과 촌락이 모두 대추 잎처럼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바다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처럼 대승인大乘이나 최상승인最上乘이 《금강경》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깨쳐서 본성에 스스로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스스로 지혜를 써서 늘 관조觀照하기 때문이지, 문자를 빌려서 아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빗물은 허공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龍의 조화造化로 비를 일으켜, 유정무정有情無情 할 것 없이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을 다 적셔 주는 것과 같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한 몸으로 합치니, 중생 본성의 반야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선해

견성을 하면 삼매에 들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삼매 가운데 있으면서 깊은 법계를 증득하게 된다. 《금강경》에서 말한 무상無相의 반야행으로 공덕功德을 쌓게 되는데, 이는 상근기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상有相의 인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근기가 낮은 자들은 무상의 인연을 말해 주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뒤집어져서 법을 비방하고 멀어지게 될 것이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오가해》의 〈조계육조선사서曹溪六祖禪師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금강경》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다만 자기의 성품을 밝게 요달하면 모든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나음을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금강경》을 지승하고 《금강경》 설함을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은 최상승, 즉 큰 지혜인을 위해서 설하여졌다면서 상근기만이 이 뜻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소승 이하의 인연은 상상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을 떠난 대승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어떤 공덕도 쌓을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을 불러일으켜 허공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 스스로의 의연함도 지켜 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성품 속에 반야의 지혜가 있어 눈만 뜨면 스스로 보이는 것처럼 문자를 빌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는 하늘이 알아서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조화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허공중에 물 기운을 머금고 있다가 인연 따라 구름을 만들고 때가 되면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처럼, 성품 속의 반야지혜도 모든 변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허공을 인연하여 비가 내리지만 허공을 벗어날 수 없듯이, 성품을 벗어난 반야지혜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인연들을 원만하게 감싸서 이루어지게 해 주는 힘이 성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金井**



# 범어사 칠성도,

# 발견부터 환수까지

1861년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되었다가 사라진 '칠성도七聖圖'가 1960년대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다시 범어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범어사 칠성도'가 발견된 곳은 스위스에 위치한 한 경매소. 범어사는 잃어버린 '성보寶寶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희준, 이하 재단)과 손을 잡았다. 범어사와 재단은 결국 '범어사 칠성도'를 경매로부터 낙찰 받는 데 성공, '범어사 칠성도'는 반세기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글 · 이민선(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연구원)





특집 \_ 돌아온 칠성도



‘칠성신앙’의 표상,  
‘칠성도’

스위스 경매에 출품된 ‘범어사 칠성도’ 3점, 1861년, 비단에 채색, 각 84×55cm  
(사진은 왼쪽부터 치성광삼존도, 제5 광달지변여래-염정성군도, 제6 범해유희여래-무곡성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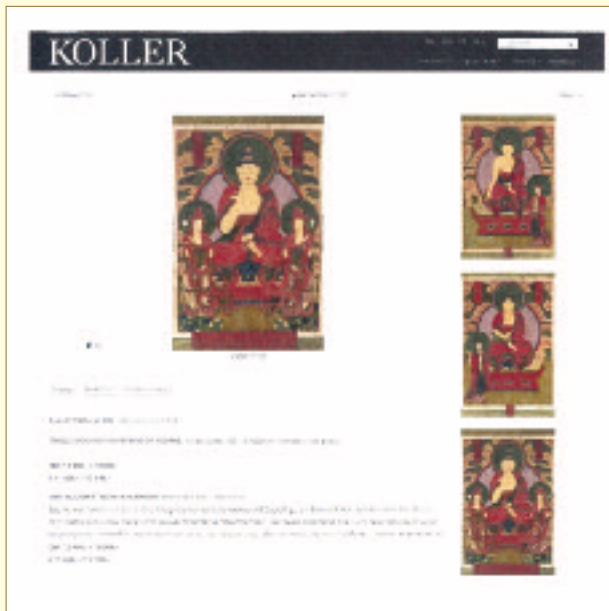
‘칠성도’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비롯한 여러 별을 부처로 형상화한 그림이다. 보통 북극성을 본존인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로, 북두의 일곱 별을 각각 부처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본존과 권속들을 모두 한 폭에 묘사하기도 하지만, 10폭이나 11폭 등으로 나누어 그리는 경우도 있다. 조선 후기에 많이 조성된 ‘칠성도’는 칠성과 북극성 신앙이 반영된 불교회화로, 당시 사찰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 대상이었다.

‘범어사 칠성도’는 본래 11폭으로 제작되었는데, 그중 세 폭이 이번 스위스 경매에서 발견되어 범어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 폭에는 칠성도의 중심인 치성광삼존도(熾盛光三尊圖, 치성광여래·일광보살·월광보살이 그려져 있다)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두 폭에는 각각 제5번 별 ‘염정(廉貞)’과 제6번 별 ‘무곡(武曲)’이 부처와 성군으로 형상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차분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수작(秀作)이다. 문명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19세기 후반기 칠성도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 스위스 경매소에서 '칠성도'를 발견하다

1861년에 제작되어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되었다가 1960년대 해외로 유출된 '범어사 칠성도'가 발견된 곳은 스위스에 있는 경매소였다. 지난 5월 14일, 재단은 해외 경매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콜러 경매사[Koller Auktionen]의 웹사이트에서 '칠성도' 3점을 발견하였다. 'DREI BUDDHISTISCHE MALEREIEN, Korea, dat. 1861(불화 3점, 한국, 1861년작)'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작품 이미지가 올라와 있었다.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만으로는 해상도가 높지 않아 세부 확인이 어려웠다. 재단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스위스 경매소에 추가 사진자료를 긴급 요청하였다.



경매사 웹사이트에 올라온 '범어사 칠성도'

## '칠성도'의 조성 경위를 담은 화기畫記

웹사이트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으로는 화기를 해독할 수 없어 추가 사진자료를 요청한 지 약 일주일 만인 5월 19일 늦은 저녁, 재단 담당자는 경매소로부터 고해상도의 사진을 받아 볼 수 있었다. 화기는 불화의 조성 경위에 대해 적은 기록으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에서는 1년에 수천여 건의 해외 경매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칠성도를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화기에 있다. 스위스 경매소에서 제공한 추가 사진자료를 통해 화기를 모두 읽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칠성도' 3점 중 하나인 '치성 광삼존도'에 나온 화기이다.



咸豐十一年辛酉  
六月日造成七星  
幀十一軸密陽府  
載藥山表忠祠  
萬日會蓮池□  
移安于東萊府  
金井山梵魚寺極  
樂庵  
緣化秩  
證明華雲觀□  
誦呪比丘性咸  
金魚秩  
片手影潭善宗  
比丘瑋□  
都監喚月度閑  
供養主有直  
化主海城錦□  
獨辦大施主  
庚午生薛氏  
三剛  
住持有□  
書記管俊  
三寶尚信

'칠성도'의 조성 경위를 담은 화기畫記

화기의 첫머리(밑줄 친 부분)에서 '함풍 11년 6월일 칠성탱 11축을 밀양부 재약산 표충사 만일회 연지(암)에서 조성하여 동래부 금정산 범어사 극락암으로 이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범어사 극락암으로 이안하였다.'는 구절을 발견한 재단 직원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일주일에도 몇십 건씩, 1년이면 천여 건의 한국문화재가 해외 경매시장에 출품되지만, 이와 같이 본래의 소장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재단이 해외 경매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단은 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문명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사진자료를 전달하였으며, 26일과 27일에 연이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정총림 범어사 측에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 불화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진위 및 가치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평가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범어사 칠성도'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라고 평가하였다.



## 수불 스님, “잃어버린 ‘성보’, 우리 손으로 반드시 되찾아 와야”

재단에서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경매 정보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27일 부산행 막차를 타고 내려가 이튿날 바로 범어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흔쾌히 방문을 허락해 주신 덕분에 일사천리로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범어사를 찾은 재단 직원에게 범어사 주지이신 수불 스님은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성보聖寶 문화재 망실에 대한 참회의 의미로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환수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그 어떠한 조건도, 전제도 없는 간단하고 명료한 결정이었다.

범어사 주지 스님과 사중 스님들의 강한 환수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경매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진행할 재단 측 직원 1명과 현지에서 불화를 조사하고 최종 확인할 불화 전문가 1명(불교문화재연구소 이용운 불교미술연구실장)을 스위스로 파견하였다. 범어사 연수국장 학산 스님도 다음 날인 31일에 출국하였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범어사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 덕분에 체계적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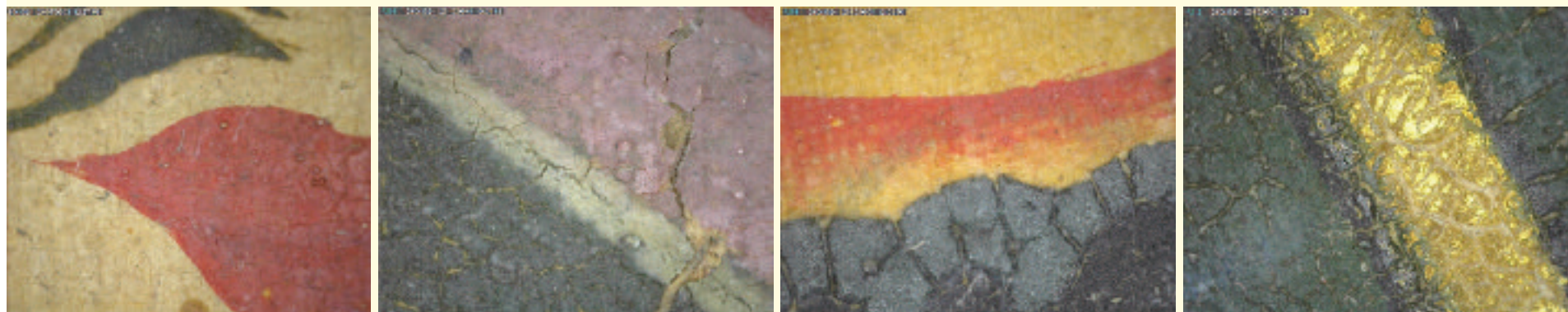
## 스위스 경매소에서 ‘범어사 칠성도’를 만나다

스위스 현지에 도착한 범어사와 재단환수실무단은 ‘범어사 칠성도’ 실사를 진행하였다. 칠성도는 붉은 틀의 액자에 들어 있었다. 액자 뒤쪽이 막혀 있어 액자를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조사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다행히 칠성도의 보존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했다. 박락되었거나 개채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미경 카메라로 꼼꼼히 점검해 보니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고 부분적으로 금채金彩도 보였다.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을 들여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액자 왼편 하단에는 초록색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SOTHEBY’S’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경매 담당자는 “소장자가 미국 소더비 경매에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다. 마치 범어사로 돌아오길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귀한 인연이 성사된 것이다. 그때 미국에서 판매되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뻔하였다.



스위스 경매소에서 ‘칠성도’를 보는 범어사 연수국장 학산 스님





위 '범어사 칠성도' 조사 장면, 아래 '범어사 칠성도' 현미경 사진

## '범어사 칠성도' 고국으로 돌아오다

6월 3일, 경매는 예상보다 30분가량 늦은 10시 30분에 시작되었다. 10시 54분, 경매장 단상 뒤편에 붙은 스크린에 '범어사 칠성도'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경매는 1만 스위스프랑(CHF)에서 시작하였다. 시작과 함께 재단-범어사 측과 신원 미상의 전화 입찰자 2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다. 2만 프랑이 좀 넘었을 때쯤 전화 입찰자 1명만 남았다. 양각 구도가 되자 금액이 더욱 빠르게 올라갔고 어느덧 전화 입찰자가 6만 프랑을 불렀다. 이에 재단 직원은 6만5천 프랑을 불렀다. 더 이상 입찰은 없었다. 진행자는 재단이 6만5천 프랑에 '범어사 칠성도'를 최종 낙찰 받았음을 알리는 망치를 두드렸다. 재단 직원은 그제야 들고 있던 패들(경매 입찰용 번호표)을 내려놓았다. 긴박했던 순간이 끝났다. 칠성도는 긴 여행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金井**

시계 방향으로 '범어사 칠성도' 경매 장면, 경매 도록, 경매 입찰용 번호표





특집 \_ 돌아온 칠성도

이번 칠성도 환수 프로젝트에는  
금정총림 범어사와 국외소재문화재단의 협력이 가장 주효했다.  
국외소재문화재단으로부터 이번 칠성도 환수 과정을 자세히 들어 봤다.  
다음은 재단 이민선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一問一答

국외소재문화재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국외소재문화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에 근거해 2012년 7월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한국문화재를 조사연구하고, 현지에서 한국문화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나 국내에 입수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번 환수와 관련된 재단의  
해외 경매 모니터링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번 '범어사 칠성도'는 해외 경매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한국문화재의 해외 경매 출품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은 약 3천여 개의 경매소로, 2014년 기준 약 2,700여 건의 경매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범어사 칠성도'와 같이 경매나 아트페어 등에 확인되는 문화재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다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중국 문화재로 잘못 소개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됩니다. 중요 한국문화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재단에서는 모니터링에 신중을 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재 환수가  
갖는 의미는?

이번 '범어사 칠성도'의 환수는 단순히 역사·문화·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문화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해외로 유출되었던 한국문화재가 본래의 소장처(범어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문화재 중 원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 뿐 아니라 환수된 이후 본래 있었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어사 칠성도'의 환수가 매우 특별한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범어사 칠성도의  
문화재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범어사 칠성도'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칠성도'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구도와 차분한 색채, 여래와 성군 1위씩 배치한 독특한 구성, 단아하고 건장한 불상의 형태 등이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이번 스위스 경매에 출품된 3점의 '칠성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칠성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치성광삼존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치성광삼존도'에 제작 연도와 제작자, 제작처, 봉안처, 시주자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화기가 남아 있어 19세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범어사 칠성도'는 역사·예술·학술적으로 중요한 우리 문화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다. '범어사 칠성도'의 원 소장처인 범어사의 주지 이신 수불 스님께서 처음부터 확고한 환수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후 진행이 매우 순탄하였습니다. 굳이 꼽자면, 경매는 한번 끝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준비 시간 내에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이 컸습니다. 칠성도 화기에서 '범어사'라는 글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경매장에서 '칠성도'를 낙찰 받고 제가 최종 낙찰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추진 중인 다른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가 있는지요?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범어사 칠성도'가 남아 있습니다. 3점이 스위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점도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칠성도'를 찾기 위해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해외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문화재를 전수 조사하는 실태사업의 경우 올해 예정된 총 6개 기관(영미권 3개, 일본 3개)의 실태조사 사업 중 2개 기관은 이미 상반기에 조사되었고, 4개 기관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6월에는 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 7월부터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며, 10월에는 유럽지역 박물관·대학의 한국미술(또는 아시아미술)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7권의 실태조사 조사 보고서와 『(돌아온 문화재 3)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 칠성도 환수는 모범적 문화재 환수의 사례



글. 문명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 1960년 전후 6.25 전란 시기에

해외로 유출되었던 범어사 극락암의 칠성도(1861년 작) 3점이 머나먼 스위스 취리히에서 고향 범어사에 극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위원장 안휘준 교수)의 끈질긴 노력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총무원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근래 드문 모범적 문화재 환수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 이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는

칠성도 8점(11점) 가운데 본존 치성광여래도와 제5 광달지변여래도 및 제6 법해유희여래도 등 3점이다.

첫째, 본존 치성광여래도熾盛光如來圖는 본존 치성광불과 일광(소재)·월광(식재)보살 등 3존으로 구성된 삼존도이다. 본존은 둥근 두·신광배를 배경으로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얼굴이 둥글면서도 단아하며 체구는 건장하면서도 팽만감이 있고 대의는 옅은 적혈색이다.

둘째, 제5 광달지변여래도廣達智弁如來圖는 광달지변여래와 왼쪽 하단부의 염정성군廉貞星君으로 이루어진 칠성도인데 불상의 형태, 채색 등은 본존도와 동일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염정성군은 모든 장애를 소멸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광달지변여래도 역시 중생들의 온갖 장애를 없애 주는 부처님으로 널리 신앙되고 있다.

셋째, 제6 법해유희여래도法海遊戲如來圖는 법해유희여래와 오른쪽[向右] 하단부의 무곡성군으로 이루어진 칠성도이다. 구도, 형태, 채색, 무늬 등이 본존 치성광불도와 거의 동일하며 본존수인과 협시의 배치만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 무곡성군은 원래 덕이 두루 갖추어진 성군이므로 부처님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어 주는 부처님으로 존송되고 있다.

## | 이 세 점의 칠성도는

본존 치성광여래도와 제5, 6 칠성여래도 외에 1, 2, 3, 4, 7 등 5점(이외 협시도)의 칠성도는 없지만 본존 칠성도와 2점의 칠성도만으로도 이 칠성도의 유래, 도상 특징, 양식 특징 등을 잘 알 수 있어서 매우 귀중한 칠성도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칠성불도는 칠성(칠원성군)이 부처님으로 승격된 이른바 의불화된 그림으로 각 칠성 불화가 독립되어 본존불화 등 8점의 칠성도를 이루고 있어서 통도사 안양암, 파계사, 동화사 극락전 칠성도와 함께 귀중한 예로 크게 중요시될 만하다. 특히 5년 후 조성된 통도사 안양암 칠성도(1866년)와 가장 유사하여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통도사 안양암 칠성도 역시 11폭(현 5폭)이고 선종이 부화사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본존 치성광여래도에 협시보살인 일광소재보살, 월광식재보살의 명칭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서 이론이 분분한 협시보살의 명칭을 확정해 주고 있으므로 이 그림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칠성도는 1861년 철종 12년에 조성된 것으로 표충사 만일회 때 조성되어 범어사 극락암으로 이안하여 봉안했던 예로 조성 유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칠성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이 불화를 조성한 화사는 영담<sup>靈潭</sup> 선종<sup>善宗</sup> 또는 선완<sup>善完</sup>과 봉의<sup>奉義</sup>인데 이들은 경남 일대와 전남 동부에 걸쳐 활약한 분들로서 많은 불화를 조성했던 저명한 화사들이다. 화기가 불분명하여 선종<sup>善宗</sup>인지 선완<sup>善完</sup>인지 불확실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선종과 선완은 호가 같고 활동한 지역이 일치하여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느 이름이든지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예로 보면 선종이 옳을 것이다.

수화승 선종은 1861년에 표충사에서 아미타후불도, 1866년에 통도사 안양암에서 칠성도를 그렸고, 수화승 선완은 보조화승 봉의와 함께 1865년에 고성 운흥사 삼세불도를 그리고 있어서 선종과 선완은 같은 화승으로 생각되며 종<sup>宗</sup>을 획을 잘못 읽어 완<sup>完</sup>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휴휴정사가 있던 자리는 원래 극락암이 있었으며, 이곳에 칠성도가 봉안되어 있었다.

### | 따라서 이 칠성도는

짜임새 있는 구도, 단아하면서도 건장한 불상의 형태와 늘씬한 보살과 성군, 화려하지는 않지만 밝은 화면 등에서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칠성도로서 1~2개의 예배에 남아 있지 않은 1폭씩의 11폭 칠성도 형식을 보여 주는 가장 오래되고 아주 중요한 칠성도로 높이 평가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의를 감안하여 필자는 환수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 칠성도는 범어사(박물관)에 현존하고 있는 1891년작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1폭보다 30년 앞선 칠성도로 범어사 극락암 칠성각의 변천과 극락암이 부산 일대 칠성신앙의 중심 사찰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어서 칠성신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25전란의 혼란기에 폐사된 극락암이 복원되어 불교신앙 중에 녹아 있는 민속신앙의 위상이 재현되고 나아가 불교신앙으로 승화된 칠성신앙이 널리 선양됨으로써 범어사 불교신앙의 다양성과 종합성이 한껏 발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여기에는 범어사 수불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金井**

문명대(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국내에 권위 있는 불교미술문화재 전문가로서 후학들에게 한국 불교미술의 가치에 대해 알리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국의 미, 최고의 예술품을 찾아서>(공저) 등이 있다.



## 화엄회상 대중들은 보살이며 부처이며 신이다

부유무량주산신 소위보봉개화주산신 화림묘계주산신 고당보  
復有無量主山神<sup>하니</sup>所謂寶峯開華主山神<sup>과</sup>華林妙髻主山神<sup>과</sup>高幢普

조주산신 이진정계주산신 광조시방주산신 대력광명주산신 위광  
照主山神<sup>과</sup>離塵淨髻主山神<sup>과</sup>光照十方主山神<sup>과</sup>大力光明主山神<sup>과</sup>威光

보승주산신 미밀광륜주산신 보안현견주산신 금강밀안주산신  
普勝主山神<sup>과</sup>微密光輪主山神<sup>과</sup>普眼現見主山神<sup>과</sup>金剛密眼主山神<sup>이라</sup>

여시등 이위상수 기수무량 개어제법 득청정안  
如是等<sup>이</sup>而爲上首<sup>하사</sup>其數無量<sup>하니</sup>皆於諸法<sup>에</sup>得清淨眼<sup>하시니라</sup>

다시 또 한량없는 주산신<sup>主山神</sup>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봉개화<sup>寶峯開華</sup> 주산신과 화림묘계<sup>華林妙髻</sup> 주산신과 고당보조<sup>高幢普照</sup> 주산신과 이진정계<sup>離塵淨髻</sup> 주산신과 광조시방<sup>光照十方</sup> 주산신과 대력광명<sup>大力光明</sup> 주산신과 위광보승<sup>威光普勝</sup> 주산신과 미밀광륜<sup>微密光輪</sup> 주산신과 보안현견<sup>普眼現見</sup> 주산신과 금강밀안<sup>金剛密眼</sup> 주산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었습니다.

다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습니다.

주산신<sup>主山神</sup>이란 산을 맡은 신이다. 산신, 산왕대신, 산신령이라고도 부른다. 산신당에 예배를 드릴 때 만덕고승<sup>萬德高勝</sup> 성개한적<sup>性皆閑寂</sup> 산왕대신이라고 일컫는다. 산은 높고 수승한 수많은 덕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성품은 한적하다. 부동<sup>不動</sup>의 자세로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있기 때문이다. 산의 덕을 찬탄하려면 아마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등산가들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였다. 오르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지키며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덕을 찬탄하는 말에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 산에 높이 올라가면 시야가 특 트여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리라.

부유불가사의수주림신 소위포화여운주림신 탁간서광주림신 생  
復有不可思議數主林神<sup>하니</sup>所謂布華如雲主林神<sup>과</sup>擢幹舒光主林神<sup>과</sup>生

아발요주림신 길상정엽주림신 수포염장주림신 청정광명주림신  
芽發耀主林神<sup>과</sup>吉祥淨葉主林神<sup>과</sup>垂布焰藏主林神<sup>과</sup>清淨光明主林神<sup>과</sup>

가의뇌음주림신 광향보편주림신 묘광형요주림신 화과광미주림신  
可意雷音主林神<sup>과</sup>光香普徧主林神<sup>과</sup>妙光迥曜主林神<sup>과</sup>華果光味主林神<sup>이라</sup>

여시등 이위상수 부사의수 개유무량가애광명  
如是等<sup>이</sup>而爲上首<sup>하사</sup>不思議數<sup>라</sup>皆有無量可愛光明<sup>하시니라</sup>

다시 또 불가사의한 수의 주림신<sup>主林神</sup>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포화여운<sup>布華如雲</sup> 주림신과 탁간서광<sup>擢幹舒光</sup> 주림신과 생아발요<sup>生芽發耀</sup> 주림신과 길상정엽<sup>吉祥淨葉</sup> 주림신과 수포염장<sup>垂布焰藏</sup> 주림신과 청정광명<sup>清淨光明</sup> 주림신과 가의뇌음<sup>可意雷音</sup> 주림신과 광향보편<sup>光香普徧</sup> 주림신과 묘광형요<sup>妙光迥曜</sup> 주림신과 화과광미<sup>華果光味</sup> 주림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불가사의한 수였습니다.

모두 다 한량없이 많은 사랑할 만한 광명을 지녔습니다.

주림신<sup>主林神</sup>이란 숲을 맡아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다. 숲은 산소를 생산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숲이 없는 사막이나 민둥산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삭막한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숲이 있어서 산소가 있고 숲이 있어서 물이 있고 수많은 동식물이 숲에 머물며 삶을 영위해 간다. 숲은 곧 생명이다. 따라서 숲은 보살이며, 부처님이며, 신이다. 어찌 지키고 보호하며 존경하여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숲의 덕을 찬탄하는 말에 “한량없이 많은 사랑할 만한 광명을 지녔다.”라고 하였다. 길을 가다가 숲을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쉬고 싶어진다. 애착이 절로 솟는다. 그 숲 속에다 토굴 하나 짓고 싶어진다.

부유무량주약신 소위길상주약신 전단림주약신 청정광명주약신  
復有無量主藥神<sup>하니</sup>所謂吉祥主藥神<sup>과</sup>梅檀林主藥神<sup>과</sup>清淨光明主藥神<sup>과</sup>

명칭보문주약신 모공광명주약신 보치청정주약신 대발후성주약신  
名稱普聞主藥神<sup>과</sup>毛孔光明主藥神<sup>과</sup>普治清淨主藥神<sup>과</sup>大發吼聲主藥神<sup>과</sup>

폐일광당주약신 명견시방주약신 익기명목주약신 여시등 이위상  
蔽日光幢主藥神<sup>과</sup>明見十方主藥神<sup>과</sup>益氣明目主藥神<sup>이라</sup>如是等<sup>이</sup>而爲上

수 기수무량 성개이구 인자우물  
首<sup>하사</sup>其數無量<sup>하니</sup>性皆離垢<sup>하야</sup>仁慈祐物<sup>하시니라</sup>

다시 또 한량없는 주약신<sup>主藥神</sup>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길상<sup>吉祥</sup> 주약신과 전단림<sup>梅檀林</sup> 주약신과 청정광명<sup>清淨光明</sup> 주약신과 명칭보문<sup>名稱普聞</sup> 주약신과 모공광명<sup>毛孔光明</sup> 주약



무비 스님의 화엄경 산책 ㉔

신과 보치청정普治淸淨 주약신과 대발후성大發吼聲 주약신과 폐일광당蔽日光幢 주약신과 명견시방明見十方 주약신과 익기명목益氣明目 주약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성품에는 모두 다 때를 여의어서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돕습니다.

주약신主藥神이란 병고를 치료하는 약을 맡은 신이다. 병에 응하여 약을 준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법의 약을 뜻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약도 법의 약에 못지않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모두가 약이다. 불교에는 약사여래藥師如來도 있고 약왕보살藥王菩薩도 있다. 몸도 마음도 병이 들면 모두가 약으로써 고친다. 그렇다면 약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약은 곧 보살이며 부처님이며 신이다. 약을 잘 연구하고 약을 잘 활용하여 신인 약으로써 세상의 모든 병고를 다 치료하여야 할 것이다. 병고로 고통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유무량주가신 소위유연승미주가신 시화정광주가신 색력용건  
復有無量主稼神하니所謂柔軟勝味主稼神과 時華淨光主稼神과 色力勇健  
주가신 증장정기주가신 보생근과주가신 묘엄환계주가신 윤택정  
主稼神과 增長精氣主稼神과 普生根果主稼神과 妙嚴環髻主稼神과 潤澤淨  
화주가신 성취묘향주가신 견자애락주가신 이구정광주가신 여시  
華主稼神과 成就妙香主稼神과 見者愛樂主稼神과 離垢淨光主稼神이라如是  
등 이위상수 기수무량 막불개득대회성취  
等이而爲上首하사其數無量하니莫不皆得大喜成就하시니라

다시 또 한량없는 주가신主稼神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연승미柔軟勝味 주가신과 시화정광時華淨光 주가신과 색력용건色力勇健 주가신과 증장정기增長精氣 주가신과 보생근과普生根果 주가신과 묘엄환계妙嚴環髻 주가신과 윤택정화潤澤淨華 주가신과 성취묘향成就妙香 주가신과 견자애락見者愛樂 주가신과 이구정광離垢淨光 주가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큰 환희를 성취하였습니다.

주가신主稼神이란 농사를 맡은 신이다. 원시사회에서나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문명사회에서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영원히 변함없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농사다. 어찌 신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살이 아니겠는가. 어찌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농사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으로 인하여 육신이 건강해지고 정기가 증장해져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없게 된다. 덕

을 찬탄하는 글에 “큰 환희를 성취하였다.”고 하였다. 실로 큰 기쁨은 농사다. 잘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하고 받들어 섬겨야 할 것이다.

부유무량주가신 소위보발신류주하신 보결천간주하신 이진정안  
復有無量主河神하니所謂普發迅流主河神과 普潔泉澗主河神과 離塵淨眼  
주하신 시방변후주하신 구호중생주하신 무열정광주하신 보생환  
主河神과 十方徧吼主河神과 救護衆生主河神과 無熱淨光主河神과 普生歡  
희주하신 광덕승당주하신 광조보세주하신 해덕광명주하신 여  
喜主河神과 廣德勝幢主河神과 光照普世主河神과 海德光明主河神이라如  
시등 이위상수 유무량수 개근작의 이익중생  
是等이而爲上首하사有無量數하니皆勤作意하야利益衆生하시니라

다시 또 한량없는 주하신主河神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발신류普發迅流 주하신과 보결천간普潔泉澗 주하신과 이진정안離塵淨眼 주하신과 시방변후十方徧吼 주하신과 구호중생救護衆生 주하신과 무열정광無熱淨光 주하신과 보생환희普生歡喜 주하신과 광덕승당廣德勝幢 주하신과 광조보세光照普世 주하신과 해덕광명海德光明 주하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한량없는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뜻을 내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였습니다.

주하신主河神이란 강과 하천을 맡은 신이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강과 하천들이 있다. 강이나 하천들은 모두가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다. 그 강이나 하천들이 있으므로 비가 아무리 내려도 크게 범람하지 않으면서 논과 밭에 물을 대어 주면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사람과 동물들이 식수로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배에 물건과 사람을 싣고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도 한다. 이것 모두가 주하신이 하는 일이다. 강과 하천의 역할을 깊이 살펴보면 참으로 보살이며 부처님이며 신이다. 화엄회상의 대중에는 당연히 동참해야 할 신이며, 역시 우주만유의 일원으로 화엄바다를 이루고 있다. 덕을 찬탄하는 글에 “부지런히 뜻을 내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밝은 이치다. 金井



무비 스님  
부산 범어사에서 여환(如幻)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대강백으로 통도사·범어사 강주,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대 역경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금강경 강의』, 『화엄경 강의』, 『사람이 부처님이다』, 『법화경(상·하)』, 『임제록 강설』 등이 있다. 현재 80권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집필 중에 있다.



## 팔불중도八不中道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대중사

글 · 불교신문 이성수

“올해 81세로 90을 바라본다는 망구望九입니다.  
(법종사의) 초하루 법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법문도 하지 않고,  
공식 행사도 참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여름의 한복판을 향해 달려가는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법종사에서 친견한 원로의원 현해 스님은  
“나는 참선을 해서 도道を 깨친 것도 아니다.”라며  
겸손하게 말문을 열며 차를 한 잔 건넸다.  
국내외 대학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연구하고 강의한 스님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시원한 감로수 같은 가르침을 설해 주었다.  
<편집자>







“불법(佛法)은 세속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 명예, 돈 그것이 불법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들에게도 남편의 승진이나 아들의 합격을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해 스님은 출가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범어사와 인연이 됐다고 옛일을 회고한다. 1962년 비구계를 설한다는 <불교신문> 광고를 보고 범어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당시 오대산 월정사 원주 소임을 보고 있던 현해 스님은 비구계를 설하기 일주일 전에 범어사에 도착해 동산 큰스님께 인사를 올렸다.

보제루 근처에 있는 조실채에서 동산 스님께 큰절로 삼배를 드렸다. “어디서 왔어?” “월정사에서 왔습니다.” “은사는 누구여.” “월정사 주지 하시는 ‘희’ 자, ‘찬’ 자 스님입니다.” “그래, 그러면 탄허 스님 손자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 탄허 스님은 잘 있어.” “네, 잘 계십니다.” “그래,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아.”

현해 스님은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에서 지남(指南)으로 삼을 가르침으로 ‘정견(正見)’을 꼽았다. “바른 눈으로 보면 옥인지 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른 눈, 즉 정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눈에 병이 들면 옥석(玉石)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정견을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 현해 스님은 정견을 갖는 방법으로 “마음속의 탐욕(貪慾)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탐욕이나 욕심이 있으면 눈을 가리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구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정견을 근간으로 하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바른 눈을 지니면 사물이 바로 보입니다.  
풍랑 속에서는 물 밑이 절대 안 보일 수밖에요.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다리면 자기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고  
풍랑이 잦아들면 물 밑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현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인간의 참인격을 도야(陶冶)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곧 수행이고, 참선이고, 염불”이라고 말한다.

현해 스님은 50여 년 전 동산 스님께 인사를 드리던 그때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기만 하단다. “같이 살자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정이 넘쳤고, 순진하신 것 같아 마음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예불에 동산 스님이 가장 먼저 나와 계셨고, 예불 후에는 각 단을 돌며 참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중올려를 알리는 목탁 소리가 나서 마당에 나가니, 큰스님은 벌써 제일 먼저 빗자루 들고 앞서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노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못 봤기에 비질하시는 동산 큰스님이 생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질하시는 큰스님에게서 대중을 거느리는 어른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라고 감동을 받았지요.”

1960년대 범어사는 객승(客僧)도 대중공양을 다 같이 했다고 한다. 현해 스님은 대중공양에 참여하며 또 다시 놀랐다고 한다. “범어사 청풍당과 지대방을 나누는 가운데 문을 떼어내고 대중이 한 자리에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조실(동산) 스님이나 우리 같은 하판이나 찬이 똑같았습니다. 한 가지 반찬도 더 있지 않았지요.”

동산 스님은 그 어떤 스님이 오더라도 범어사에서 같이 살면서 수행하자고 권했다. 당시만 해도 범어사는 물론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모두 살기 어려웠기에, 대중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은 ‘큰일’이었다. 하지만 동산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부처님과의 지중한 인연으로 출가사문의 길을 걷는 후학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며 같이 정진하길 권유했던 것이다.



스승에게 길을 묻다

현해 스님은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해야만 했다. 당시 중앙종회에서 남부 지방은 통도사, 중부는 범주사, 북부는 월정사로 비구계를 설하는 도량을 지정 결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살계만 받고 월정사로 돌아갔다. “중앙종회에서 3개 사찰을 지정하니, (동산 스님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지간한 스님 같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요. 당시 큰스님이 중정이셨지만, 종회에서 결의한 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것을 곁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듬해 6월경 현해 스님은 서울 개운사에 들렀다. 이때 고교시절 은사인 능가 스님을 우연히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마 스물아홉 살인가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오셨는데, 그때 능가 스님은 키가 훗칠하고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출가하여 스님이 된 줄은 몰랐지요. 개운사에서 저를 보고는 ‘자네, 중이 됐는가. 열심히 수행하게.’라며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청정승단을 구현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화불사의 과정을 지켜본 현해 스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처럼 성공했다.”고 회고한다. “동산 스님이 주축이 되어 청담 스님과 금오 스님이 앞장서 정화를 했습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습니다. 비구승 250명이 대처승 7,000명을 상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성공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화불사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현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덕분에 불교정화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려는 비구승이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불자들은 물론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대한불교조계종이었다. 승유억불의 조선시대와 대처불교 도입의 일제강점기 등 암흑기에도 굴하지 않고 정법正法の 당간幢竿을 끝내 지켜냈던 것이다.

그러나 정화불사 3대 과업이며 종단의 3대 목표 가운데 도제양성(교육)과 역경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포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현해 스님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포교布教



와 전법傳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대학 불교학생회나 사찰 학생회, 청년회 등이 없어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불법을 전하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한국불교의 신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출가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정진하면서 포교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치 안수정등岸井藤 이야기처럼 그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에 취해 본질적인 문제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스님의 걱정은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구석 구석에서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고 있으며, 잘된 일은 내 탓이고 잘못된 일은 남 탓으로 여기며, 전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현해 스님은 한국 사회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면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한다. 팔불중도八不中道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취한) 정각正覺은  
고행苦行만 해도 몸이 축이 나서 깨칠 수가 없고  
너무 낙樂에 빠져도 공부가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도中道만이 도를 깨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서재 한편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벽안 스님이 손수 써 준 글 한 점이 걸려 있다. ‘苦海寶筏고해보벌’이란 네 글자이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보배로운 배’라는 의미로 현해 스님은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일본 유학을 떠날 때 김포공항까지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며 전해 주셨던 글입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는 저에게는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은 글이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金井

현해 대종사

법호는 연암然庵, 법명은 현해玄海. 1935년 울산에서 출생했다. 1959년 만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중비생 1기로, 197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1981년 일본 외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연구했다. 1983년 일본 다이쇼대학 대학원에서 천태학을 연구했다. 제3대, 제7대, 제10대 중앙종회 의원, 월정사 주지,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월정사 회주로 있다.

‘한국불교와 법회사상 봉정법회’ 기념.





그곳에 가면

# 한국 차[茶]의 명지, 선차 도량 봉명산 다솔사

숲길은 언제 걸어도 좋다.  
활엽이 우거진 숲도 좋지만  
소나무가 빼곡히 햇살을 가려 주는 길도 좋다.  
구부정한 허리로 제 몸을 지탱하면서도 날카로운 침엽은  
하늘을 찌를 듯 호기롭다.  
여유로운 평일 아침,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숲길을 따라 다솔사(주지 동초)로 향했다.

사진·석공 / 글·편집부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4년(503) 연기 조사가 창건해 영악사靈岳寺라 불리다가 선덕여왕 5년(636)에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 후 문무왕 16년(676) 의상 대사 때 영봉사靈鳳寺로 고쳐졌다가, 경문왕(861~875) 때 도선 국사가 다시 다솔사로 바꿔 불렀다. 이후 다솔사는 고려 충숙왕 13년(1326)에 중수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 소실되었으며, 숙종 6년(1680)에 복원된 이래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건 역사만 봐도 다솔사는 소실과 복원을 반복하며 아픔을 겪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활용됐다.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다. 만해 한용운을 비롯해 김법린과 최범술, 불교철학을 연구·교육하는 데 힘쓴 김범부가 대표적이다.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김동리 역시 다솔사에 머무르며 창작 활동을 했다. 김동리의 역작인 소설 <등신불>은 다솔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특히 다솔사 앞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최범술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차 씨앗을 구해 다솔사 뒤편에 심으면서 넓은 차밭을 일구었다. 이 차밭은 한국 차맥의 성지로 대표되고 있다.

주지인 동초 스님은 다솔사가 품은 민족 정신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솔사는 차와 민족의 정기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안심료는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곳이기도 하고 김동리 작가가 소설을 쓰던 곳이기도 하지요. 이곳 다솔사 도량은 그들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아픔을 치유하던 곳입니다.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의 정신을 품었던 고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독립운동의 거점,  
민족정신의 분수령

동초 스님이 직접 차를 따는 모습.







그곳에 가면



- 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인 대양루.
- 2. 효당이 심은 차나무.
- 3. 찻잎을 버리던 수구.
- 4. 와불 뒤로 보이는 사리탑.
- 5. 다술사 적멸보궁.



탱화에서 발견된 진신사리, 기도처로서의 다술사

### 선과 차의 본체는 하나 '선다일여禪茶一如'

다술사는 2013년부터 매년 다술사 선차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차인들이 차 문화의 성지에서 선차를 올리며 한국의 차 문화를 한껏 선보였다. 동초 스님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본성에 접근하는 선의 종지를 일깨우고 화두라는 방편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수지의 수행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선차의 핵심은 바로 불이의 관념적 일치성, 선과 차의 본체는 하나라는 사실에 있습니다.”라고 선차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근래의 한국 차 문화가 선을 표방하며 대중들에게 선차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이것이 자칫 차의 정신을 흐트리고 선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다술사의 차맥은 효당 최범술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릴 적부터 차를 마셔온 효당은 다술사에 차밭을 일구어 '반야로'라는 이름의 차를 보급하는 한편 차에 관한 연구와 계몽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의 차생활사>를 집필하여 많은 차인들을 지도했다. 또한 청도 운문사에서 <차도용심>을 강의하였고 한국 최초로 한국차도회를 결성했다. 이때가 1977년이었다. 전국의 차인들은 이곳에서 효당의 가르침을 받고 각지에 차 문화를 보급했다. 차인 효당이 한국 차도의 일인자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을 거듭하여 다술사와 차의 연관성은 맥이 끊겨 있었고 오래된 차밭만이 다술사의 차 역사를 일러 줄 뿐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초 스님은 다술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잊혀진 다술사의 차맥을 되살리기 위해 선차축제를 열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다시 많은 차인들이 다술사를 찾고 있다. 한국 차의 성지인 이곳을 찾는 일은 차인들에게는 꼭 가 봐야 하는 명소 중 하나로 관심받고 있다.

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다술사이지만 신심 있는 불자들에게는 차보다 적멸보궁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다술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두고 있다. 다술사의 사리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다술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탱화를 모시고 있었다. 사리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삼존불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뒤편에 있던 탱화였다. 어느날 도굴꾼이 들어 탱화를 도난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탱화에서 사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사리는 모두 108과였다. 이후 사리탑을 모시고 적멸보궁을 세우게 된 것이다.

와불 뒤로 보이는 사리탑을 친견하는 일은 불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도굴꾼의 욕심이 찾아 준 사리는 이곳 불자들에게 귀중한 의지처가 되고 있다. 과거 다술사는 강원을 두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대찰이었다. 보안암과 봉일암을 보면 옛 대찰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보안암 석굴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로서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건립되었다. 이 석굴은 경주 석굴암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5





1. 봉명산 정상 아래에 있는 차실, 불이암.  
 2. 찻주전자에서 찻물을 달이는 스님.  
 3. 차를 들고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체험.  
 4. 다도무문, 다도엔 문이 없어야 한다.  
 5. 다술사에서 직접 제다한 '다술사차'.

### 봉명산을 두른 맑은 차의 기운

범당 뒤로 펼쳐진 차밭은 단연 다술사의 절경 중 하나다. 범당 가까이 차나무를 심어 두어 차밭은 다술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그뿐만 아니다. 새로 지은 불이암은 다술사의 차 문화를 상징하는 '차실'로서 동초 스님의 노력이 엿보이는 곳이다. 선차 도량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간 다술사에는 마땅한 단독 차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스님은 남해가 훤히 보이는 봉명산 정상 아래에 '불이암'이라는 이름의 차실을 지었다. 차실은 사방이 문으로 통하여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다.

차실 주변에는 차나무 씨앗을 심어 두었다.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차나무로 둘러싸여 선차 도량 다술사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차인들이 이곳에 와서 언제나 차를 마시고, 언제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실은 차를 마시는 공간이자 수행의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살 일에 급급하여 차 문화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경허 선사, 만공 선사, 한암 선사 등 대덕 차승들은 우리 차 문화를 지키며 전수하였습니다. 차와 선은 불이이며 무문입니다. 역대 큰스님들이 차와 함께 수행하셨던 모습은 차와 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술사의 차 문화 정립은 이 시대에 필요한 불법 흥포입니다.”

봉명산 곳곳에는 동초 스님이 심어 둔 차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 효당을 이어 다술사의 차맥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 지금 스님에게는 가장 큰 화두이다. 봉명산천이 차로 물들고 한국의 선차가 제 가치를 온전히 빛낼 수 있도록 그 길목에 다술사의 인연이 닿아 있다. **舍井**

##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에 보존되어 있는 그림으로, 제석천帝釋天을 비롯한 여러 권속들을 그린 신중도이다. 신중도는 대승불교에서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봉안되어 신앙의 대상이 된 신중神衆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예배용 불화이다.

이 제석신중도는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려진 것으로, 화면은 크게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천동·천녀·일궁천자·월궁천자가 각각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깃털 투구를 쓴 위태천韃靼天을 중심으로 좌우 8금강金剛(우측에 5명, 좌측에 3명)이 배열되어 있다.

화면의 아랫부분 중앙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제석신중도는 가경 22년, 즉 조선 순조 12년(1817)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어사 제석신중도는 작품의 상태, 도상 및 화풍 등으로 볼 때 조선시대 불교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된다.

글.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정은





화엄 구법만행 ④

# 화엄과 신앙

글.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연구처장)

## 지리산 화엄 꽃밭에 들다

지리산을 좋아하는 산객들에게 화엄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지리산 종주의 들머리가 화엄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개 해발 1,090미터 지점의 성삼재에서 시작하지만, 진정한 종주는 화엄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계곡의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험겨운 오르막길을 서너 시간 오르다 보면 노고단이 나온다. 이쯤 되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거기에 길이 있으니 말이다.

한숨 돌리고 계속해서 반야봉을 찍고 벽소령과 세석, 장터목을 지나면 지리산의 정상인 천왕봉이 나온다. 이 여정을 하루에 마치는 철인도 있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1박 2일은 잡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에서 산행을 마치고 백무동이나 중산리로 하산하지만, 천왕봉에서 치발목을 거쳐 대원사로 내려오는 이들도 있다.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47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을 산객

들은 화대종주라 부른다.

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린 어느 여름날, 화엄이라는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지리산 화엄사를 찾았다. 지리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곳의 청정한 공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와 계곡에서 전해오는 음이온은 삼독으로 찌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세팅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때면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일주문을 지나 금강문에 이르자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가 양쪽에서 나를 반겼다. 화엄도량답게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한 화엄 꽃밭에서 노니는 이들을 위해 좌우에서 지켜 주는 것 같아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천왕문을 지나 보제루에 이르자 숲 속의 나무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기둥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안내 책자에는 이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소개되어 있다. 책자의 내용을 읽고 다시 바라보니, 정말로 보제루의 기둥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으로 오묘하다. 책자의 내용이 뇌에 입력되어 오감五感으로 받아들인 기둥들을 새롭게 해석하니 말이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뇌의 착각'이라고 한다.

드디어 화엄사의 상징인 각황전覺皇殿에 이르렀다.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잠시 발걸음이 멈췄다. 어느 가수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고 노래했는가. 각황전 앞에 섰을 때의 내 마음이 꼭 그랬다. 그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한없이 초라해진다. 각황전은 외적인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권위는 이런 것이리라.

각황전의 본래 이름은 장육전丈六殿이다. 장육전은 거대한 석가여래입상을 모신 3층의 전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부 벽은 <화엄경>의 내용이 새겨진 석경石經으로 이루어졌는데, 석경 조각들은 화엄사 경내에 위치한 성보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소실된 전각을 다시 지으면서 숙종 임금이 내려 준 각황전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목조건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전각이다.

각황전 앞문에는 '백일관음기도도량'이란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참배하러 안으로 들어가니 한 스님이 관음정근에 열중하고 있었다. 스님께 방해될까 싶어 서둘러 법당을 나와 대웅전으로 향했다. 이곳은 대웅전이므로 석가모니 불을 모셔야 하는데, 비로자나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적광전이라고 해야 할 텐데, 왜 대웅전이라고 했을까? 임진왜란 때 소실된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인조 임금의 숙부인 의창군義昌君이 써 준 현판을 그대로 걸어 놓았다 한다.

대웅전에서는 팔순이 넘어 보이는 보살님 한 분이 천수경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고 있었다.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라니를 독송하고 있을까? 그 모습이 간절하면서도 엄숙하게 느껴져, 법당 안을 걷는 발끝을 조심스럽게 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각황전의 스님과 노 보살님의 모습에서 화엄도량의 지극한 신심信心이 느껴진다. 믿음이란 진정 무엇일까?



1. 화엄사 신문  
2. 화엄사 일주문  
3. 문수동자  
4. 보제루  
5. 화엄경 석경



## 믿음에도 질이 있다

위. 화엄사 각황전 아래. 각황전 앞 석등과 사자탑



종교는 검증을 통해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체계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화엄에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화엄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信爲道元功德母], 일체 선법을 자라게 하고[增長一切諸善法], 모든 의혹을 제거하여[除滅一切諸疑惑] 위없는 도를 열어 밝게 드러낸다[示顯開發無上道].”

화엄에 따르면 믿음은 불교의 본질인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모든 공덕과 선법이 자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깨달음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信行]을 통해 가능하다. 불교에서 신심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믿음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 신비주의자인 구제프[Gorge Gurdjieff, 1877-1949]에 의하면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자각된 믿음[conscious faith]과 정서적 믿음[emotional faith], 기계적 믿음[mechanical faith]이 그것이다. 그는 자각된 믿음은 자유[freedom]이지만 정서적 믿음은 노예[slavery]이며, 기계적 믿음은 어리석음[foolishness]이라고 지적하였다. 믿음에 대한 이런 분류는 부처님[佛]과 가르침[法], 승가[僧]를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먼저 기계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디자이너가 설계한 대로 작동할 뿐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앙하는 행위는 불교에서 삼독 중 하나로서 경계하는 어리석음[痴]일 뿐이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정서적 믿음도 마찬가지다.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나 음악, 미술과 같은 정서적 요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종교를 신앙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구제프가 이런 믿음을 노예라고 부른 이유

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신앙 형태는 정서가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일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각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진지한 문제의식을 통해 내가 신앙하는 이유와 내용을 현재 내 삶의 실존과 연결해서 성찰하는 일이다. 화엄의 믿음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화엄에서는 ‘내가 곧 부처’이며, 이를 자각할 때 비로소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도의 근원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각황전과 대웅전에서 관음정근과 다라니 삼매에 빠진 분들의 신심도 이러한 자각된 믿음에서 나오는 신행일 것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부처라는 꽃들로 아름답게 장엄된 화엄도량이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은 불자들이 범피 때마다 독송하는 <반야심경> 첫 머리에 등장하는 관자재보살과 같은 분이다. 현장 스님이 의미를 살려 관자재보살로 번역한 것이다. 이 보살은 글자 그대로 자유자재롭게 보는 분이다.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밝게 보았기[照見五蘊皆空]’ 때문이다. 이 역시 정서적이거나 기계적이 아니라 존재의 참모습에 대한 자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度一切苦厄] 대자유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엄은 결코 무조건적인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참모습을 돌아켜보라고 말한다. 지금은 비록 형편없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진지하게 돌아켜보면 내가 곧 부처임을, 즉 자본이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솔직하고 당당한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信行]은 인격을 불격[佛格]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화엄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 주는 것 같다.



화엄 구법만행 ④



연화장 저 바다에 돌아가겠네

화엄사는 544년 연기 조사(緣起祖師)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연기 조사가 비구니 스님인 어머니와 〈화엄경〉을 모시고 지리산 자락에 와서 두 채의 작은 전각을 짓고 화엄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각황전 왼편으로 난 108계단을 오르면 사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과 석등이 있는데, 연기 조사의 지극한 효심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고 전한다. 고려 때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은 석탑 앞에서 머리에 석등을 지고 앉아 차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효대(孝臺)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현재는 석탑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화엄사는 〈삼국유사〉와 〈법장화상전〉에서 화엄십찰로 언급된 도량이다. 의상 대사는 화엄사를 화엄종의 원찰로 삼아 8가람, 81암자의 대사찰로 변모시켰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곳의 스님들은 승군을 일으켜 왜적과 맞서

싸웠고 일부는 이순신 장군을 도와 바다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300여 명의 스님들이 목숨을 잃었고, 왜군의 침입으로 화엄사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소실된 화엄도량은 전쟁이 끝나고 벽암 선사(碧巖禪師, 1575-1660)에 의해 여러 전각들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화엄사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호국사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화엄사 경내를 거닐다가 문득 보제루 뒷문에 걸린 ‘화장華藏’이란 편액이 눈에 들어왔다. 성보박물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보제루 내부에 걸려 있던 것을 글씨가 좋아 밖에 걸어놓았다 한다. 화장이란 청정하고 밝은 빛이 충만한 이상적인 부처님의 땅, 즉 파라다이스를 가리킨다. 연화장蓮華藏이란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가수 김연숙이 부른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임이시여’란 노랫말에 등장하기도 한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당신 곁에 남겨 두고 나도 이제는 연화장 저 바다에 돌아가겠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임

이 누굴까? 상념에 잠겨 본다. 문득 그 임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 중생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 속의 자신을 돌아켜보면 가당치도 않다. 부처는커녕 중생도 그런 중생도 없을 정도로 한심하고 형편없이 살기 때문이다. 온갖 탐욕을 이기지 못해 성내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어찌 스스로를 부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초라한 자신의 실존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소중한 부처’라고 용기를 주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분께 노랫말처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온 몸을 바쳐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라는 신앙고백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어리석은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서원과 다르지 않다. 그런 성숙한 신앙고백이 바로 연화장 저 바다에 돌아가는 삶이다. 그곳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파라다이스, 즉 불국토이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부처로 거듭난 내가 또 다른 부처인 타인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룩한 신앙 공간이다.

화엄사를 떠나기 아쉬워 산내 암자인 구층암(九層庵)과 연기암(緣起庵)에 들렀다. 구층암은 대웅전 뒤편 오솔길을 따라 1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나온다. 모과나무로 만든 승방의 기둥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자연 그대로를 옮겨놓은 모과나무 기둥은 마치 마루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고 있는 것 같다. 인위적인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혼돈(混沌)의 기둥’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가공된 질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혼돈인 것이다. ‘혼돈’은 〈장자(莊子)〉에 나오는데, 이름을 도용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기암은 화엄사 옆으로 난 산길을 자동차로 10분 정도 가면 나온다. 입구에 들어서면 문수보살 기도도량답게 지혜의 상징인 거대한 문수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이를 본 순간 문득 자기 성찰에 바탕을 둔 수준 높은 화엄의 신앙은 곧 지혜와 돌일 수 없다(不二)는 생각이 들었다. 문수보살과 관음보살, 지혜와 신앙은 곧 한 몸(一體)이었던 것이다. 구제프가 말한 자각된 신앙은 다름 아닌 지혜였던 것이다. ㄱ井

이일애(이창구)

전북대학교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송광사 승가대학에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한국불교 등을 강의해 왔다. 보조사상연구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저서로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불교학의 해석과 실천(공저)』이 있고 『나옹선의 실천체계』, 『진심(眞心)과 오수(梧樹)의 구조』, 『조선 중기 보조선의 영향』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전북불교대학에서 연구처장을 맡으면서 불교사상과 경전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불교의 외연을 넓혀 이를 종교학이나 철학과 연계 속에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1. 보제루 뒷편 화장 편액  
2.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  
3. 연기암 문수보살





범어사 관음전

# 관음전 벽화



사진·석공

비질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떨군 인물의 모습.  
멈춘 벽화 속 그의 표정에서 편안한 미소가 번진다.  
늘 번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식이란 내려놓음,  
그리고 아주 잠깐의 사색은 아닐까.





재료 : 국수, 열무 물김치 국물, 수박, 오이, 겨자, 매실진액, 고추장, 식초, 설탕, 소금

1. 수박을 갈아서 즙을 낸 후 그 즙을 열무 물김치 국물과 1:1 비율로 섞는다.
2. 1의 국물에 고추장, 매실진액, 겨자, 식초,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3. 오이는 어슷썰기 하여서 소금, 식초, 설탕에 살짝 절인다.
4. 국수를 삶아서 2의 국물을 붓고 열무김치와 3의 오이를 얹어서 낸다.

여름의 과일 수박의 변신,

# 열무 수박국수

글·대성암 / 사진·편집부



## 상추 물김치

재료 : 상추(대공 있는 것), 풋고추, 홍고추, 된장, 소금, 배, 밀가루, 생강

1. 물에 밀가루를 한 손가락 정도 풀어서 뜨물 정도의 농도로 끓여서 식힌다.
  2. 식힌 물에 된장 한 손가락을 걸러서 넣는다.
  3. 홍고추와 배는 갈고 풋고추는 채를 썰어 넣은 후 생강을 조금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4. 상추는 씻어서 가지런히 향아리에 넣고 돌로 누른 다음 3의 만들어진 국물을 붓고 하루 지나면 먹을 수 있다.
- 된장을 뽀뽀하게 끓여서 적서 먹으면 더 부드러운 맛이 난다.
  - 보리쌀을 갈아서 밀가루 대신 써도 된다.



승소승소라고 불리는 국수는 스님들에게는 최고의 별식이다.  
 먹거리가 단조로웠던 시절에도 국수는 최고의 한끼 공양이었다.  
 요즘도 국수는 스님들에게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다.  
 여름철 열무 물김치에 국수 면을 말면 간단하면서 시원한 한끼가 된다.  
 여기에 수박을 넣으면 시원한 기운이 배가 되고, 국물에 감칠맛을 더한다.  
 여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식재료의 만남이 기가 막힌다.  
 또 여름에는 쓴맛이 나는 채소의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중에서도 상추는 천금채라 불릴 만큼 흔하면서도 소중한 식자재다.  
 천금채란 천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채소란 말이다.  
 특히 상추의 대공에서는 우유처럼 하얀 액의 쓴맛이 있는데  
 이것은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천연 강장제 역할을 한다.



## 불법의 바다에 띄운 공불련의 뗏목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 회장 이종원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지난 4월 30일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 이종원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오랜 시간 공직 사회에 몸을 담으면서 겸손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그는 회장 소임을 맡으며 “매사가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 자신이 좀 더 부처님 법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회원들 간의 소통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 양산이 고향인 그는 어머니를 따라 사찰에 갈 일이 많았다. 주변으로 내원사, 통도사, 원효암 등 좋은 사찰이 많아 불교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원효암 가는 길은 아직도 뚜렷이 기억난다고 한다.

“원효암 가는 길은 험한 산길이라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지요. 어머니께서 쌀을 짊어지고 앞장서면 나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야 원효암에 도착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이어지고, 다시 내려오면 한나절을 꼴딱 다 보냈지요.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예전보다 수월해졌지만 아직도 길목에 들어서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신심 있는 불자였던 어머니의 뒤를 따르던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도 늘 가까이에 경전을 두고 읽었다. 대학 공부를 마치고는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절은 어렵고 힘든 시기 고시생들이 머무르기에 가장 좋은 공부처가 되어 주었다. 그에겐 사직동 보탑사가 그 귀한 인연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3월 보탑사에 들어갔다.

간절함은 어려움 속에서 발견되기 마련이다. 보탑사는 이 회장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간절함을 느끼게 해 준 곳이기도 하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생일을 맞은 아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써서 사찰로 찾아오기로 했는데 생일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오지 않아 그는 집에 전화를 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집에 오다가 경운기가 낭떠러지에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어머니가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공부에 방해될까 싶어서 가족들한테 절대 저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법당에 앉아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간절하게 기원드리고,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여 어머니께 보답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올랐고, 뜨거운 햇살이 부처님의 상호를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간절하고 또 간절했으니까요. 새벽 2시에 잠들고 6시에 눈떠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한 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동그라미가 빼곡하게 그려졌지요.”



신우 善友

보탑사에 들어간 지 8개월, 그해 11월 말 청년은 당당하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노력과 간절함이 일구어낸 값진 결실이었다. 이 회장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용맹정진’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의 끝에서 다시금 그때의 시간들을 떠올린다고.

“나이가 들수록 불교에 제가 얼마나 의지를 하고 살았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지, 그리고 살아가며 간절함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간의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며 요즘은 자주 스스로를 성찰해 보곤 합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데 이제야 그 내용이 진심으로 가슴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의 수단이고 깨닫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작음을 살고 있는 제게 회장직은 공부를 더 하여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라는 인연법인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20명의 공무원 불자들이 회의실을 빌려 불교 테이블을 들으며 함께 신행생활을 시작했던 작은 모임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의 모체가 될 만큼 활력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지금도 매 법회마다 80~100여 명이 참석할 만큼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행단체의 모범이 되어 왔기에 앞으로 거는 기대도 작지 않다.



“여래가 가던 길 향하여 가지 말란 말은 부처를 따르지 말란 뜻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구하여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을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 제게 남은 가장 큰 소임입니다.”



4월 30일 봉행된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 회장 취임법회, 증명 법사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참석하시어 법문을 설했다.

“시뿐만 아니라 구군별로 불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군별로 활성화된 곳도 있고 조금 침체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여러 구군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6월부터는 봉사단을 조직해 이번 달부터 봉사단을 발족시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가지고 있고 성지순례도 하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합동으로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쯤에는 회원들과 함께 범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가질 예정이다. 좋은 사찰에서 함께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연합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이 회장의 의지 때문이다.

보탑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의 책상에 꼭 붙어 있는 문구가 있었다. ‘丈夫自有衝天氣(장부자유충천기) 不向如來行處行(불향여래행처행)’. 청년이었던 그에게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를 기상을 지닌다.’는 말은 그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뒷구절이 마음에 들어온다고.

“여래가 가던 길 향하여 가지 말란 말은 부처를 따르지 말란 뜻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구하여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을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 제게 남은 가장 큰 소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장은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의 역할을 ‘불교의 저변 확대’라고 설명했다. 불교 안에서 모두가 같은 뜻을 품고 공부하는 일은 개인의 공부를 불교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신행단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회향하는 부산광역시공무원불자회 회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金井



[ 주지 스님 동정 ]



**부산연등축제 개막식 봉행**

불기 2559년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점등식이 5월 1일(금) 저녁, 송상현광장에서 봉행되었습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께서는 점등사를 통해 오늘의 인연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불교의 자비사상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고, 부산연등축제가 부산지역에 이바지하고 함께 발전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봉축연합대법회 제등행렬 동참**

부산연등축제 - 봉축연합대회가 5월 17일(일) 오후, 구덕운동장에서 봉행되었습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신라와 고려의 연등회로부터 이어진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아 구덕운동장에서 대청로까지 제등행렬을 펼친다."며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되어 신명나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 소임자 스님 동정 ]



**행복바라미 부산문화축전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고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신도회가 주관한 "2015 행복바라미 부산문화축전"을 5월 10일(일), 송상현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범어사 풍물단 및 밴드,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에 이어서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의 격려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홍 회장님의 축사와 내빈 여러분의 카드기부 시연 및 후원금 모금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 사진전**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 사진전"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제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 교학대회**

지난 5월 3일(일),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를 맞이하여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 교학대회"를 설법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범어사 및 동산문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갈 길"이라는 주제 아래,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기초발제에 이어 천제 스님, 흥선 스님, 진관 스님, 법상 스님, 범응 스님, 덕산 스님, 동국대학교 김광식 교수의 발제와 대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재**

동산 대종사님의 열반 50주기 추모재를 5월 11일(월) 오전, 보제루에서 봉행하였습니다.



**하안거 결제 법요식**

불기 2559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지난 6월 1일(월) 오전,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하였습니다. 금정총림 방장이신 지유 대종사를 모시고 여름 안거기간 중에 수행의 길잡이가 될 귀한 법어를 청해 들었습니다.



금정소식 및 알림마당



봉축법요식 | 5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사 대웅전



불교문화 체험부스 운영 | 5월 23일(토)~25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범어사 문화광장 일원



힐링콘서트 | 5월 24일(일)~25일(월) 오전·오후, 일주문 옆 미니무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무료진료 | 5월 25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범어사 종무소



봉축점등식 | 5월 25일(월) 오후 6시, 범어사 대웅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금정총림 범어사에서는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봉축법요식, 봉축점등식, 불교문화 체험 및 힐링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안거 반결제 법요식 봉행**

불기 2559년 하안거 반결제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금정총림 방장이신 지유 대종사를 모시고 하안거 기간의 수행을 중간 점검해 보는 소중한 법어를 청해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범어사 보제루

법어 :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범어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참가자 모집**

불기 2559년 범어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우리절 범어사와 부처님에 대해 배우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신나는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 ~ 8월 3일(월) 2박 3일

장 소 : 범어사 보제루

대 상 :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참가비 : 1인당 100,000원

참가신청 및 상세내용 :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 범어사 종무소 포교담당자 ☎ 051)508-3122





법인 소식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2015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재미난 금정예술공장 시즌 2”

기간 : 1기-2015년 3월 21일~7월 11일  
 2기-2015년 8월 1일~12월 5일  
 장소 : 금정청소년수련관 3층 음악스튜디오  
 대상 : 초등 3~6학년, 중·고등학생 및 만19세 이하 비학생 청소년(소외계층 우대)  
 내용 : 노래로 표현하는 예술, 그림으로 표현하는 예술, 글이나 시로 표현하는 예술, 즉 음악(작곡), 미술(CD 앨범자켓), 문학(작사)의 3가지 문화예술 분야를 가지고 청소년들 자신만의 개성 있는 노래 CD 앨범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번외 프로그램 재활용품(깡통, 목재, 드럼스틱, 등)을 활용한 강통기타 만들기 체험.  
 - 1기 발표회 : 7월 11일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밑 특설무대.  
 - 2기 발표회 : 11월 7일~8일 부산시민공원 예정.



생생문화재 “금정산성 수호대 4대문(門) 지키미”

기간 : 2015년 4월~10월 둘째, 셋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 금정산성 일대, 범어사 일대  
 대상 : 초등학생 20명, 가족 30명  
 내용 : 국내 산성 중 최장 길이 18,845m인 “금정산성 수호대”가 되어 “금정산성 4대문 이야기 체험”하는 프로그램, 병영 체험과 문화 체험 등이 결합된 “18,845수호대-금정산성 캠프(1박2일)”, 가족 단위로 참여하여 범어사 내 보물과 문화재를 투어하는 “범어사 마실길”, 가족과 함께 문화재 중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역사 속으로의 호국스테이”로 이루어진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요리보고 조리보고”

기간 : 2015년 5월 9일~7월 2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오후 1시  
 장소 : 금정청소년수련관, 어르신 댁  
 대상 : 중·고등학생 20명, 대학생 5명, 관내 어르신 5명  
 내용 : 부곡3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1세대)과 청소년(3세대)의 교류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경감시키고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해 1·3세대의 소통과 이해를 키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어르신은 자신의 추억이 담긴 요리법을 청소년에게 전수하고, 미디어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 주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

부산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는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하고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부산에 유일한 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입니다. 가출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이내(1회 1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겨울 캠프

김해한옥마을체험관으로 1박 2일 겨울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천연염색, 전통매듭, 다도예절 등의 체험 활동 및 저녁식사 후 간식을 먹으며 모두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 후 복불복으로 준비됐기에 당첨된 3가지 게임을 통해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귀가 복불복을 실시하여, 가위바위보에 이긴 친구들은 자동차로 귀가하고 아쉽게도 진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또 다른 추억을 쌓으며 귀가하였습니다.



뮤지컬 관람

힐링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관람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소한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낸 멋진 출연진들의 연기에 감동하여 함께 찰칵 기념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봄소풍

경주월드로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및 직장생활을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타고 마음껏 소리도 지르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격월간「금정」

# 金井



표지 사진, 석공

어름을 흔드는 계곡물 소리에  
탁한 마음 행귀 내니  
고요한 산중,  
청명한 법음 여기 있었구나.

발행일 \_ 불기 2559년 7월 1일  
통권 \_ 제15호  
발행인 \_ 수불  
편집인 \_ 범산  
지문위원 \_ 흥선, 무비, 인각, 경선, 지오, 용학  
편집위원 \_ 유정, 승련, 석산, 환웅, 지장, 영명,  
성공, 학산  
편집장 \_ 원걸  
행정 \_ 정성창  
사진 \_ 석공, 황용경, 정대명  
취재 \_ 최은영  
발행처 \_ 범어사  
주소 \_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팩스 051)508-3229  
원주실 051)508-3636  
템플스테이 051)508-5726  
성보박물관 051)508-6139  
등록번호 \_ 부산광역시 라01271  
제작 디자인 \_ 현대북스 051)244-1251

편  
집  
후  
기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쁜 중에  
문득 한 권의 '금정'이  
당신의 행복과 기쁨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금정지의 소임이 될 것입니다.  
\_ 원걸 스님

단단한 바위도 한때는  
한 줌 흩어졌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값진 경험이 모여  
단단해지는 금정지가 되길  
늘 간절히 바랍니다.  
\_ 최은영

후 · 원 · 안 · 내



세상의 좋은 인연에게 전하는 격월간「금정」金井 범보시는  
전법과 보시의 큰 공덕을 성취하는 복된 일입니다.

격월간「금정」金井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10-1639-09 (월간 금정지)

격월간「금정」후원 명단 (2015년 4월 20일 ~ 6월 22일)

박미정 20,000원 김원자 20,000원

禪刹大本山 梵魚寺  
金井叢林

|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

# 천년고찰 범어사

2015. 7. 21(화) ▶ 9. 13(일)

장소\_ 부산박물관



## 강연회

일시 : 2015년 7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주제 : 범어사의 불교미술  
강사 : 박은경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개막식

일시 : 2015년 7월 20일(월) 오후 4시  
장소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부산박물관 · 범어사 성보박물관





# 백중 영가천도 7일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는 올미년 백중을 맞이하여 선망조상과 유주무주 고힬의 영가를 천도하고,  
더불어 살아 있는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백중 영가천도 7일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다겁생의 업장소멸과 세세생생 무량공덕 지으시길 발원드립니다.

기간 : 불기 2559(2015)년 8월 22일(토) ~ 28일(금) | 시간 : 오전 9시 30분  
장소 : 설법전 | 문의 : 원주실 ☎051)508-3636

구분	일시	법사
입재	8월 22일(토) (음 7월 9일)	무비 스님(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2 재	8월 23일(일) (음 7월 10일)	수진 스님(범어사울학승가대학원 원장)
3 재	8월 24일(월) (음 7월 11일)	용학 스님(범어사승가대학 학장)
4 재	8월 25일(화) (음 7월 12일)	홍선 스님(범어사울학승가대학원 교수)
5 재	8월 26일(수) (음 7월 13일)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
6 재	8월 27일(목) (음 7월 14일)	지유 스님(범어사 방장)
회향	8월 28일(금) (음 7월 15일)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계월간「금정」 157호 불기 2559년 07+08월 불기 제15호, 동북번호 : 부산광역시 라101271,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www.beomeo.kr 총무소 051)508-3122